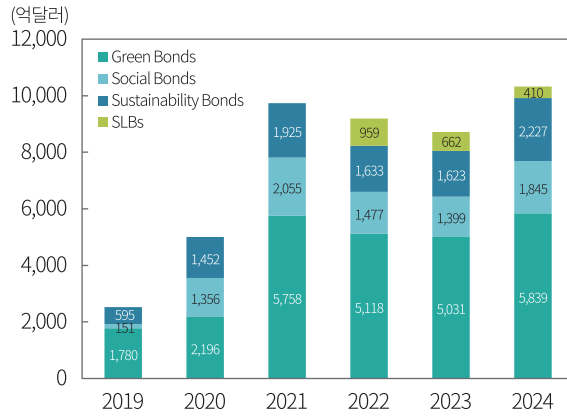


ZOOM
-IN그린본드 원칙 업데이트 및 글로벌 그린
본드 동향

- 글로벌 지속가능 채권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그린본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속가능채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자본시장협회는 최근 그린본드원칙을 개정하여 그린본드 적용 범위를 확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은 여전히 그린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EuGB를 발효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 그린본드 발행
- 미국은 2024년 그린본드 발행이 늘어났으나 최근 그린허싱 등 미국 내 관심이 낮아짐
- 아시아 지역은 지속가능채권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그 구성에 뚜렷한 차별점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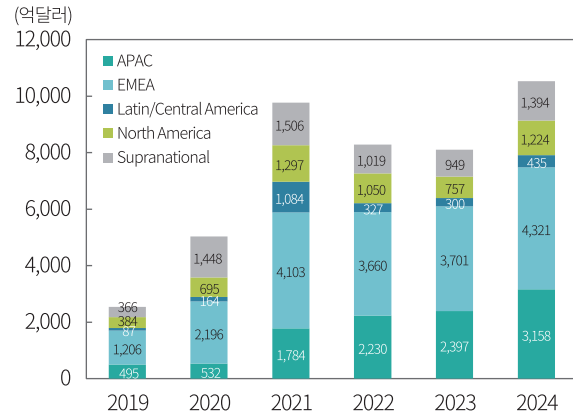
- 글로벌 지속가능(Green,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linked: GSSS) 채권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그린본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지속가능채권은 그린본드(Green Bond), 소셜본드(Social Bond), 지속가능성채권(Sustainability Bond), 지속가능성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s)으로 구분
 -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소셜본드는 사회가치 창출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지속가능성채권은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모두에 해당하는 투자를 위한 자금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지속가능성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이자율 등 채권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채권
 -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채권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여 1조 달러를 기록
 - 이 중 그린본드는 약 5,839억 달러로 전체 중 57.67%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지속가능성채권(2,207억 달러, 22%)과 소셜본드(1,845억 달러, 18.23%)가 차지
 - 그린본드는 2021년 5,7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2% 증가하며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 고점을 갱신

〈그림 1〉 2024년 지속가능채권 종류별 발행액



자료: ICE

〈그림 2〉 2024년 지속가능채권 지역별 발행액



자료: ICE

□ 그린본드의 성장에 맞춰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는 2025년 6월 그린본드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을 개정

— 그린본드원칙은 그린본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가이드라인으로 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 보고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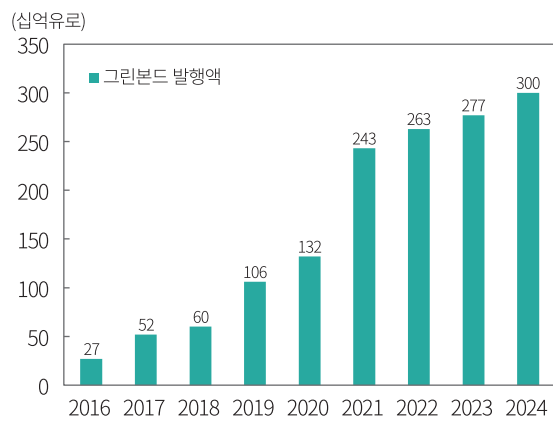
- 자금 사용처: 발행대금은 적격 그린 프로젝트(예: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재대출을 구분하고 그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장
- 평가 및 선정 절차: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적격 그린 프로젝트의 목표, 선정 기준,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전달
- 자금 관리: 전용 계좌 및 포트폴리오를 통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잔액 변동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 또는 제3자의 검증이 권장
- 보고: 자금 전액이 집행 시까지 매년 프로젝트 목록, 집행금액, 예상 및 실제 효과가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함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린 프로젝트 정의 범위 확대와 2024년 Green Enabling Projects Guidance의 반영으로 더 넓은 산업·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것

- 기존 그린 프로젝트 분류는 자산, 투자, 기타 관련 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활동 부문(activity category)을 추가
- 단순히 자산 투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린 활동’의 이행 및 운영, 서비스 제공, 행동 변화, 운용 효율화까지 적격 범주에 포함함을 의미
-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뿐 아니라,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건 및 운용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교육, 탄소저감 행동 유도 프로그램 운용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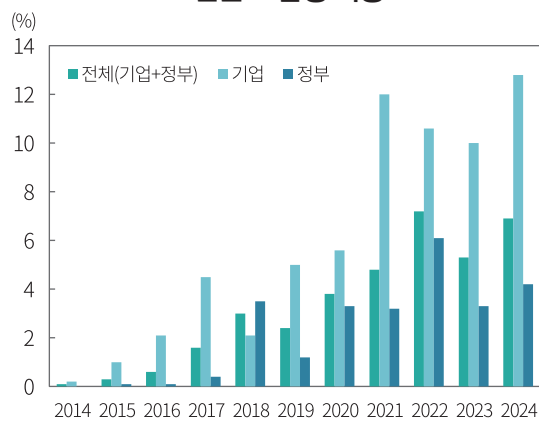
- 또한, Green Enabling Projects도 그린본드의 그린 프로젝트로 반영하면서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그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개발, 제조, 이행 등의 활동도 그린 본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

〈그림 3〉 유럽 그린본드 발행액 추이



자료: AFME

〈그림 4〉 유럽의 각 주체별 전체 채권 발행 대비 그린본드 발행 비중



자료: EEA

□ 한편,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유럽은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2024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 중 약 51.7%를 차지¹⁾하였음

- 유럽금융시장협회(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AFME)에 따르면 2024년 유럽의 그린본드 발행은 3,000억 유로를 기록²⁾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유럽 전체 채권 발행 중 그린본드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전체 채권 발행 중 그린본드 발행 비중이 큰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 그린본드 규제 체계인 EU Green Bond Standard(EuGB)가 발효

- EuGB는 2024년 12월 21일 발효되었으며 그린본드 발행에 대한 자발적 표준으로 그린본드 신뢰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EU 지속가능금융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추구
- 그린본드 발행 전 공식 등록된 외부 감사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행 후에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조달된 자금의 최소 85%는 EU 분류체계(EU Taxonomy)의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할당되어야 하며 모든 수익은 EU 녹색분류체계의 환경목표를 따르고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

1) ICE, 2025. 2, Sustainable Bond Analysis.

2) AFME, 2025. 3, ESG Finance Report 2024 Q4.

- EuGB가 발효되면서 이탈리아 공기업 A2A가 최초로 기준에 부합하는 5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유럽투자은행(EIB)은 30억 유로의 대형 그린본드를 EuGB 기준으로 발행³⁾

□ 미국은 2024년 그린본드 발행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주춤하고 있으며, 최근 정권 교체 이후 그린허싱(Greenhush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ICE는 2024년 미국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그 중 64%가 그린본드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서 약 13%를 차지한다고 밝힘⁴⁾
- 다만,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그린본드 발행은 244억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 433억 달러 대비 43% 감소
- 또한, 그린허싱 등 미국 내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도 보임
 - 그린허싱은 ESG 활동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데 Conference Board에 의하면 올해 전반기 Russell 3000 기업 중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432개로 전년 831개 대비 50% 감소⁵⁾
 - 금융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며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Citigroup, JPMorgan, Goldman Sachs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Net Zero Banking Alliance(NZBA)⁶⁾에서 탈퇴⁷⁾하였으며, Wells Fargo는 탄소중립 목표를 완전 철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채권은 꾸준히 성장하여 유럽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린본드가 주를 이루나, 일본은 특히 기후 전환 채권의 성장이 두드러짐

- ICE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채권은 5년 내내 침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지속가능채권 발행의 30%를 차지
- 일본은 2023년 7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라는 이름의 기후 전환 채권(Transition Bond)을 발행⁸⁾
 - 기후 전환 채권은 고탄소 산업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린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활용 범위가 넓음
 - 일본은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기후 전환 채권을 발행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3) IEEAFA, 2024. 4. 14, European Investment Bank sets example with Eu Green Bond Issuance.

4) ICE, 2025. 2, Sustainable Bond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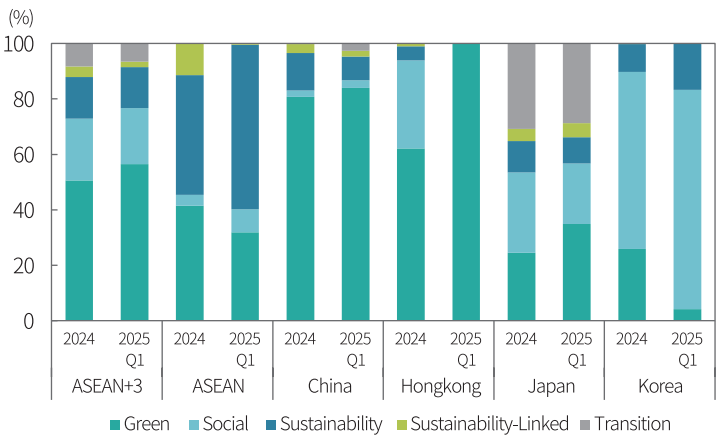
5) The Conference Board, 2025. 7. 9, Why fewer companies are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in 2025.

6) 2021년 4월 출범한 UN 산하 기후 이니셔티브로 2050년까지 은행의 대출, 투자 및 자본 시장 활동의 순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함

7) 이승은·이상원, 2025. 1. 21, 최근 미국 대형은행들의 NZBA 탈퇴 배경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8) 이보람·손원주, 2024. 4. 1,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5〉 ASEAN+3 지속가능채권 발행 국가별 비중



자료: AsianBondsOnline

연구원 최지운